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시인'

## 언어의 세계에서 삶의 길 찾은 윤동주와의 만남

송우혜

소설가



**"나는 내가 걸어갈 삶의 길을 언어의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거니와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언어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언어의 세계에 매혹됐고, 그 매혹으로 가득한 길을 최후까지 힘껏 달렸습니다."**

윤동주 시인.

그 처참하고 원통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생각하면 늘 맑고 시원한 여름날 새벽 푸른 상수리나무 숲 속에 있는 듯한 청정함과 청신함이 느껴지는 사람. 시인 윤동주는 그런 사람이다. 뜻밖에도 그가 예전에 산책하기를 즐기던 서울 연희동 뒷산의 한적한 숲길에서 그와 마주쳤다. 길가의 목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쉬고 있는 그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을 보자, 그의 시 <십자가>의 한 구절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다.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분

**송우혜** — 안녕하세요. 당신의 시 구절을 빌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분이시여'라고 부르고 싶군요.

**윤동주** — 그것은 내가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헌사지요. 그 표현을 내게 인용하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송우혜** — 그것은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시귀였지요. 작은 규모로나마 당신의 삶 안에서 또 역시 '십자가'의 길이 펼쳐졌으니까요.

**윤동주** —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라면, 삶이 주는 고통과 그 교훈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지요.

**송우혜**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당신의 존재와 이름이 하나의 중요한 기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요?

**송우혜**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는 시귀로 대표되는 당신의 삶과 시가 지닌 청정함 때문이지요. 그러한 당신의 삶과 시가 자주 이야기되고 읊어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맑고 깨끗함에 더욱 큰 갈증을 느끼는 시기라는 맥락에서입니다. 더운 여름에 찬 것을 찾고 추운 때 뜨거운 것을 찾듯, 혼탁하고 추악한 사회일수록 맑고 깨끗함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윤동주** — 내가 살던 시대의 혼탁함과 추악함에 대해 느낀 절망은 정말 컸습니다. 그 절망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나 자신이 비로소 한 사람의 시인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시대에 대해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느낀다면,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말하는 기호라는 용어는 매우 유용한 것이군요.

**송우혜** — 제가 보기에,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난해하고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당신이 일본의 감옥에서 옥사하던 장면입니다. 당신은 일제가 강요한 이름 모를 주사

를 맞다가 사망하셨지요. 그 주사가 전시(戰時)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용 주사였다는 추정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맞게 한 정체불명의 주사에 의해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던 당신은 결국 외마디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기력이 다해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마디소리를 높게 질렀는지... 너무 처절해서, 문득 소름이 돋습니다. 당신이 내지른 그 외마디소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윤동주** —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말이 다한 자리, 말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리, 바로 그 한계의 극한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며,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 아니겠어요?

### 높은 외마디소리의 실체

**송우혜** — 당신의 마지막 비명을 직접 들은 간수에 관한 증언들 또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일본인 간수가 그 사실을 '어떤 말'로 전했는지에 관한 증언이 세 종류더군요.

첫째, 당신의 시신을 찾으러 일본의 복강(福岡) 형무소에 갔던 당신의 당숙 윤영춘 선생의 증언이지요. "사망한 지 열흘이 되었으나 큐슈 제대(九州帝大)에서 방부제를 써서 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일본 청년 간수 하나가 따라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 '아하, 동주가 죽었어요, 참 암전한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나 외마디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운명했지요' 하며 동정하는 표정을 보였다" (《나라사랑》 제23집 윤동주 특집호, 114쪽).

둘째, 당신의 친구로서 연전 문과 동기생이자 해방 뒤인 1948년 1월에 당신의 유고를 모아 시집으로 발간해낸 강처중의 증언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나 마지막 외마디소리를 지르고 운명했지요. 짐작컨대 그 소리가 마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듯 느껴지더군요." 이 말은 동주의 최후를 감시하던 일본인 간수가 그의 시체를 찾으러 갔던 그 유족에게 전하여 준 말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1948년 판 초간본 발문 중에서).

셋째, 당신의 동생 윤일주 교수의 증언입니다. "동주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나 큰소리를 외치고 운명했습니다"고 일본인 간수가 전해 주었다고 한다" (《나라사랑》 제23집 윤동

주 특집호, 161쪽).

당신이 운명하던 모습을 전한 일본인 간수의 말은 오직 하나이지요. 그러나 당신의 친족들과 친구가 세상에 전한 그 말에 관한 증언은 이렇듯 제각각입니다.

**윤동주** — ...그렇군요.

**송우혜** — 위의 세 가지 증언 중에서 윤영춘 선생의 증언을 빼 나머지 두 분의 증언은 사리에 닿지 않아요. 강처중씨의 경우, 일본인 간수가 조선인 죄수가 운명할 때 외마디소리를 지른 것을 전하면서 "짐작컨대 그 소리가 마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듯 느껴지더군요"라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윤일주씨의 경우, 일본인 간수가 "동주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나" 운명했다는 것인데, 단지 대학생 신분일 뿐인 무명의 조선인 죄수를 두고 일본인 간수가 어찌 '동주 선생'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결국 강처중씨나 윤일주씨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당시에 일본인 간수가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 마음이 실제처럼 윤색되어 증언 속에 녹아들어가진 않았겠습니까!

**윤동주** — 그렇게 봐야겠지요.

**송우혜** — 당신은 시와 삶이 그대로 일치하는 행복한 시인이라고 말해지지만, 이렇듯 뻔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도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당신의 시나 생애 전반에 관한 인식에도 같은 위험이 내재하는 것 아닐까요?

**윤동주** — 그것은 비단 나의 시나 삶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나아가 인식(認識)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내지 한계와 맞닿아 있는 명제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그 질문은 인간의 한계에 관한 궁극적인 성찰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요.

### 그 시대가 강요했던 언어

**송우혜** — 어느 시대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뇌하게 마련입니다만, 당신도 청소년 시절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전 문과로 진학하여 문학을 전공하려고 한 반면, 집안 어른들께서는 의과를 해서 의사가 되든지 고등고시를 쳐서 출세하여 집안을 이끌어주시기를 강요했지요. 당신은 단식 투쟁에다 외박을 하는 등의 격렬한 반항을 보임으로써 결국 어른들의 고집을 꺾고 의지

# 책과 오과장

박 시백.



“우리사회에서 당신의 존재와 이름은 하나의 기호로 기능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시귀로 대표되는 당신의 삶과 시가 지닌 청정함 때문이지요. 혼탁한 사회일수록 깨끗함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송우혜씨.

를 관철했습니다만, 문학의 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윤동주 — 나는 내가 걸어갈 삶의 길을 언어의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문학을 선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거니와,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언어가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언어의 세계에 매혹되었고, 그 매혹으로 가득한 길을 최후까지 힘껏 달렸습니다.

송우혜 — 그렇게 자부하는 당신이 운명하는 최후의 순간에 세상에 남긴 것이 언어가 아닌 높다란 외마디소리였다는 사실은 아주 함축적이군요.

윤동주 — 그 외마디 비명이야말로 그 시대가 나에게 강요했던 또다른 형태의 언어였다고도 생각되는군요.

송우혜 — 당신의 연전 문과 후배인 정병욱 교수가 남긴 증언을 보면, 당신은 정병욱씨에게 언제나 깃듯이 존대말을 하셨더군요. 학년으로는 2년 아래였고 나이로는 5년이나 아래였으며 더구나 한 방울 같이 쓰는 하숙을 하는 친숙한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형이 <별 헤는 밤>의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런 후배를 인격적으로 높이 대우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 자신과 타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되지 않습니까?

윤동주 — 나는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세상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공경하라는 선현의 가르침을 삼가 실천하려고 늘 애를 썼지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후배인 정병욱씨를 대했던 태도 역시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습니다. 가까이 눈을 대고 들여다보면, 세상은 실로 경이롭고도 위대한 곳입니다. 작은 풀꽃 하나, 뜰에 흩어진 지푸라기 하나조차 모두들 삶의 경이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서로 성인이 된 뒤에 만난 후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피차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해도, 그 간격은 예의와 존중과 사랑으로 그 안이 충만해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숲 사이로 난 길을 걷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오래도록 눈길을 땔 수가 없었다. 사람이 지닌 아름다움이 때로는 꽃의 아름다움보다 더하다는 말이 새삼 마음을 찔러. ❖